

월간미술

EXHIBITION TOPIC



로버트 마더웰 - 悲歌

20세기 미국 현대미술의 혁명적 운동이었던 추상표현주의를 주도한 로버트 마더웰(1915~1991)의 개인전이 바라카 컨템포리리에서 열리고 있다. 마더웰의 대표작 <스페인 공화국에 바치는 비가 No.130>을 비롯한 습작과 판화 등 국내 관객에게 소개될 기회가 없었던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마더웰의 작업을 통해 관객들은 추상표현주의 미술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당대 미술의 지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시는 5월 12일까지.

<스페인 공화국에 바치는 비가 No.130> 캔버스에 아크릴 243.8×304.8 cm 1974~1975

유럽과 동양, 미국 미술의 교차점

전유신 | 미술사

로버트 마더웰(Robert Motherwell, 1915~1991)은 미국 추상표현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뉴욕 스쿨(The School of New York)'의 형성을 주도한 비평가 및 교육자였다. 마더웰은 1930년대에 미국과 프랑스에서 유럽의 철학, 문학, 미술사를 두루 학습했고, 1940년대 초부터 작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마더웰은 초현실주의 작가 로베르토 마타(Roberto Matta)와 교류하며 오토마티즘 드로잉을 시도했고, 마타와 폐기 구겐하임(Peggy Guggenheim)의 독려로 첫 클라주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초기작들로 1944년 구겐하임의 '금세기 미술갤러리(Art of This Century Gallery)'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로써 작가로서의 이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한편으로 그는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마크 로스코(Mark Rothko), 존 케이지(John Cage), 그리고 해럴드 로젠버그(Harold Rosenberg) 등과 함께 『가능성들(Possibilities)』과 같은 잡지를 발행하고 '예술가의 주제들(The Subjects of the Artist)'이라는 학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은 미국의 1세대 모더니즘 미술가들을 규합하는 계기가 되었고, 마더웰이 이들에게 부여한 '뉴욕 스쿨'이라는 명칭을 통해 이들의 존재가 국제적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 마더웰은 유럽의 철학과 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고 그것을 작업의 근간으로 삼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적인 현대미술의 등장에 일조한 작가로 평가할 수 있다.

바라캇 컨템포리리의 <로버트 마더웰-비가(悲歌)전>을 통해 소개된 <스페인 공화국에 바치는 비가(Elegy to the Spanish Republic)> 연작은 유럽의 문학 및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이를 미국을 대표하는 추상표현주의 미술로 승화시킨 마더웰의 대표작이다. 이 연작은 그가 1948년부터 그리기 시작해 작고하기 전까지 지속한 마더웰의 필생의 작업으로, 대형 유화작업과 습작 등 총 25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바라캇 컨템포리리 전시에는 1974~1975년에 제작된 <스페인 공화국에

바치는 비가 No.130>과 같이 작가 자신이 직접 일련번호를 붙인 이 연작의 대표작 및 관련 습작과 판화 등이 소개된다.

<비가> 연작의 시초가 된 유화작업은 1948년에 제작된 <오후 5시에(At Five in the Afternoon)>로, 이는 스페인의 시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Federico Garcia Lorca)의 비가와 연계된 것이다. 로르카는 투우사이자 시인이었던 이그나시오 산체스 메히아스(Ignacio Sánchez Mejías)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이 시를 썼고, 마더웰은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오후 5시에'라는 시구를 작품의 제목으로 차용했다. 로르카의 시에서 강조된 삶과 죽음의 대비는 마더웰의 작업에서는 흑과 백의 색면을 교차시키고 타원형의 검은 색면을 더하는 방식으로 재현되었다.

<비가> 연작의 상징이 된 이와 같은 구성은 이후 또 다른 색채들이 추가되는 등 여러 형태로 변주되면서 연작 전반에 적용되었다.

<비가> 연작은 스페인의 시인 로르카가 개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쓴 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기 시작했지만, 2년 후인 1950년부터는 작품의 제목에





〈시선 NO.1〉(사진 오른쪽) 캔버스에 유채 206.1×264.2cm 1958
아래 〈카탈루나 친기〉(사진 가운데) 캔버스에 아크릴 61×91.4cm 1985



'스페인 공화국'이라는 명칭이 더해진다. 1930년대 말에 발발한 내전으로 스페인 제2공화국이 해체되고 프랑코 독재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스페인 공화국에 바치는 비가>에는 이 내전이 빚은 참상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카탈루냐 찬가(Homage to Catalonia)>(1985)는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쓴 동명의 소설로부터 그 제목을 빌려왔는데, 이 사건에 대한 마더웰의 관심을 확인하게 해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마더웰이 스페인이라는 특정 국가의 문학과 역사적 사건에 친착하고 그러한 관심을 <비가> 연작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연작을 처음 제작한 지 10년이 지난 1958년에야 처음으로 스페인 방문을 시도했다. 그러나 프랑코 정부로부터 작품의 제목에서 '스페인 공화국'을 빼지 않을 경우 입국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서, 마더웰의 첫 스페인 방문은 결국 좌절되었다. 게다가 매카시즘의 광풍이 몰아친 1950년대 미국에서도 내전 결과 사라진 좌파적인 스페인 공화국을 애도하는 마더웰의 <비가> 연작은 공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마더웰이 미국과 스페인으로부터 정치적인 압력을 받으면서도 이 연작을 계속 제작했던 것은 이것이 특정 국가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비극의 감정을 드러내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이 연작을 처음 제작했을 당시 마더웰 자신이 겪은 개인적인 고난들은 그가 로르카의 비기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스페인 내전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애도의 감정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마더웰은 제2차 세계대전이 아닌 1930년대 스페인에서 벌어진 내전을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비극이 벌어진 원형적 사건으로 주목했다. 이는 마더웰이 당시 로르카의 시를 포함해 스페인 문학에 심취한 점과 그의 <비가> 연작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내전을 주제로 한 피카소의 <게르니카(Guernica)>를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접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의 문학과 역사, 그리고 예술로부터 받은 영향과 그에 대한 반응이 농축된 <비가> 연작은 추상표현주의 미술의 유럽적인 근원을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바라캇 컨템포러리의 전시에서 이목을 끄는 또

다른 작품들은 추상표현주의 제스처 페인팅과 동양적인 필법을 동시에 연상케 하는 <제스처 시리즈(Gesture Series)>(1969)이다. <비가> 연작을 포함해 당대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작업에서 사용된 검정색이 시대의 우울함을 반영하는 무게감을 지닌 것과 비교하면, 마더웰의 <제스처> 연작에서 사용된 것은 먹의 동양적인 색감과 필치이다. 추상표현주의 작가 중 상당수가 선불교와 서예 등 동양의 문화와 예술에 주목했는데, 마더웰은 그러한 관심을 자신의 작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낸 작가이기도 하다. 1960년대에 제작된 <사무라이> 연작이 그 대표적인 예로, 이번 전시에 소개된 1969년작 <제스처 시리즈(A)>는 이 연작과의 연계성이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다. 흑백의 대조와 물감을 홀뿌리거나 번지게 하는 효과, 그리고 신체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이 작업들은 추상표현주의와 동양의 서예가 만나는 접점을 잘 드러내준다.

전후의 미국 문화는 유럽의 그것을 근간으로 탄생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서구문화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대척점에 있었던 동양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그런 점에서 전후의 미국은 유럽과 동양의 문화가 만나는 교차로였고, 특히 추상표현주의는 이와 같은 당대의 미국적 상황 속에서 탄생한 미술이라 할 수 있다. 마더웰은 추상표현주의 미술가들 중에서도 유럽의 문화와 미술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도가 가장 높았고, 유럽에 이어 동양의 문화와 미술에도 주목한 작가였다. 그런 점에서 마더웰의 작품은 이 두 문화와 연동되어 탄생했으면서도 그것을 재해석해 가장 미국적인 추상표현주의 미술로 승화시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바라캇 컨템포러리의 <로버트 마더웰-비가(悲歌)전>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마더웰 개인전으로, 추상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임에도 국내에서는 접하기 힘들었던 마더웰의 작업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다. <스페인 공화국에 바치는 비가> 연작 이외에도 그의 예술세계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추상표현주의 미술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던 복합적인 근원들과 당대의 국제적인 지형을 마더웰의 작업을 통해 되짚어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전시의 묘미라 할 것이다. ●